





최우수

-
- 01 캠퍼스에서 아시아를 꿈꾸며 꿈의 날개를 달다 08
문정수 Tokyo University
 - 02 2022 썸머스쿨(SDC)을 마치며.. 13
박수연 부산대학교
 - 03 나의 성장일기 19
Kana Yuki Ritsumeikan University



우수

-
- 04 캠퍼스 아시아를 통한 성장 26
이서현 성균관대학교
 - 05 잊지 못할 워킹&스터디 맘의 첫 해외 워크숍 33
김홍선 부산대학교
 - 06 캠퍼스 아시아와 나의 성장 44
김요재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장려

-
- 07 My Exchange Experience at Kobe University: Cooperation when Richer Individual Stories are Embedded in Deeper Inclusive Context 46
Li Jing Kobe University
 - 08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 고베 51
전설희 고려대학교
 - 09 일본 츠쿠바, 교육과 배움의 장 54
이세영 한국교원대학교
 - 10 20대의 나를 도전하게 만들어준 캠퍼스아시아 59
박준성 동서대학교



최우수

캠퍼스에서 아시아를 꿈꾸며 꿈의 날개를 달다
문정수 Tokyo University

2022 썸머스쿨(SDC)을 마치며..
박수연 부산대학교

나의 성장일기
Kana Yuki Ritsumeikan University

2021-2022 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JAPAN



KOREA



CHINA

캠퍼스에서 아시아를 꿈꾸며 꿈의 날개를 달다

문정수 | Tokyo University

●●● 사업단 |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캠퍼스아시아 사업단 중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서울대-도쿄대-북경대 2년 반 트랙을 마친 도쿄대 공공정책학과 문정수라고 합니다.

2019년 늦가을, 쌀쌀한 11월의 아침공기를 마시며 캠퍼스 아시아 석사과정을 지원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졸업을 두 달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께 저의 체험을 소개해드리자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캠퍼스에서 아시아를 꿈꾸며 꿈의 날개를 달다”

2020년 가을부터 2023년 겨울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에서 공부하며 보냈던 저의 2년 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의 교량을 잇는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목표를 갖기까지, 캠퍼스 아시아라는 이름처럼 저는 각 캠퍼스에서 한중일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

류하며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제가 어떻게 미래의 아시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과정을 기획해주시고 추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미래의 참가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체험 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각 캠퍼스에서 아시아를 그려보며 2년 반의 여정 속으로 떠나볼까요?

지원동기

캠퍼스 아시아를 지원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동기만이 아니라 저의 성장배경과 함께 다양한 동기들이 함께 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거의 10년을 산 저에게 있어 인종차별, 국경분쟁, 문화 및 언어 장벽과 같은 글로벌이슈는 굳이 신문의 국제면을 보지 않아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인 1995년에 악명 높았던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

트헤이트(Apartheid)가 폐지되었던 만큼 인종차별이라는 이슈는 매일 마주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왜 사람들은 피부색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차별할까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러한 의문은 국제관계라는 학문으로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9살 때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며 아프리카와 너무나 다른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저는 매료되었고 미국에서 학부를 다니며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4학년 때 UN 소속 NGO에서 인턴을 하며 다양한 국제이슈를 접하며 한중일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들이 비단 한국만의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글로벌 이슈라는 생각이 들며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갈등으로부터 걸음을 옮겨 동북아 협력, 더 나아가 아시아 협력, 그리고 지구촌이라는 인류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지도 교수님과 다양한 석사 과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던 찰나에 캠퍼스 아시아 석사과정을 접하게 되었고 당연히 저에게 합격목표 1순위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과 중국에서 공부해본 적도, 여행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위 두 국가에 대해서 더 알자는 마음으로 일본 도쿄대학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4월에 합격소식을 받았고 기쁨과 열정에 찬 마음으로 그렇게 저의 캠퍼스아시아 과정은 2020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경험 및 에피소드

도쿄대학교 (2020년 가을학기 - 2021년 봄학기)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부한 1년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다양성”, “정책의 현실적 적용”,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다양성.” 도쿄대학교는 긴 역사만큼이나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량과 수준이 상당했고 제가 공부했던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제공했던 과목들도 경제, 국제관계, 정치외교, 행정, 안보, 환경, 문화, 법 등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의 스펙트럼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정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했는데,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만큼이나 다양한 시각과 의견, 정치적 색깔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두 수업은 ‘Modern Japanese Diplomacy’와 ‘Japan in Today’s World’인데요 첫 번째 수업 같은 경우, 일본, 대만,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들과 그룹을 지어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의 영유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유권 분쟁을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녹아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에도 귀를 기울여야 함이라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인권이 대두되었던 두 사건을 비교하며 한국 여성들의 연대에는 정의를 향한 울골음이 녹아 있다고 한 의견 또한 인상에 남습니다. 위 두 수업을 들으며 모든 나라들이 우리와 똑같이 정치적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인권, 환경, 교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비록 보여지는 표면은 달

라도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공통의 고민을 한다는 것에 공동감을 느꼈습니다.

두번째 키워드, “정책의 현실적 적용.” 공공정책대학원이다 보니 대부분의 수업들이 case study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 저희가 정책을 짜서 현실에 적용하는 위주의 커리큘럼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GPPN(Global Public Policy Network) 같은 수업은 저희들이 스스로 팀을 짜서 실제로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책으로 짜오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같은 캠퍼스아시아 과정이었던 두 명의 일본친구와 한 명의 싱가포르 친구와 팀을 짰습니다. 저희는 한중일의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문제 같은 경우는 각 국가들이 모두 일심단결하여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한중일이 단순히 정치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협력해야 하며 비단 3국뿐만이 아니라 연관되어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키워드로 도쿄대 석사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옹지마라고 할까요, 기쁜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듯이, 4월에 합격발표를 받은 기쁨도 잠시 코로나로 인해 언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지가 요원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1년간의 석사과정 동안 일본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생소했던 zoom이라는 화상 플랫폼이 지금은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꾸준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처음에 경제수학 스터디를 함께 했던 미국, 이탈리아, 일본, 대만, 태국 친구들과 가끔씩 zoom으로 교류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양한 국가들을 다녀와야 하고 빠른 시간에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캠퍼스 아시아를 지원하는 미래의 학우님들께서는 적응력과 위기대처능력을 높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경대학교 (2021년 가을학기 - 2022년 봄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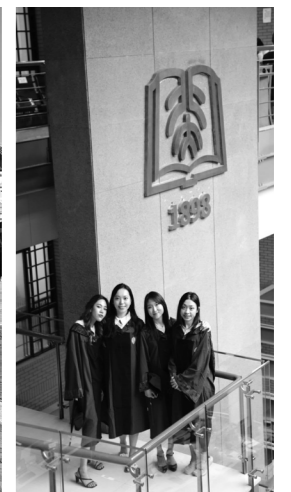
도쿄대학교에서는 일본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북경대학교에서는 중국 자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입국 초기부터 한국과 다른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마주하며 체제의 차이를 실제적으로 접했던 같습니다. 특히 ‘Chinese Politics and Public Policy’와 같은 수업을 들으며 중국 공산당의 형성, 구성, 진행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중국과 함께 공산당체제로부터 비롯된 근현대중국이 어떻게 서로 상호교류하며 현대에 공존하는지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China’s Relations With Middle East and Africa’ 같은 수업을 들으며 비록 한족이 대다수이긴 하나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민족의 다양성이 어떻게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독특성과 유기성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수학하기 전에는 중국의 대중동, 대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수업을 들으며 중국의 대내적 한계를 위 지역에서의 대외정책으로 어떻

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공부하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대내외정책과 비교하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외교정책에 대한 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당시 한국인들만 입국할 수 있었기에 저는 오히려 중국 내에 있는 다양한 중국 및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며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하며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것은 그곳 친구들이 숨김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로이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점으로 인해 중국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선입견도 타파할 수 있었고, 중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하와 같은 친구들을 만들고 사귀며 베이징 출신 중국인, 남쪽 출신과 북쪽 출신의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이 다르다는 것, 호주계 중국인과 미국계 중국인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중국,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어도 부룬디, 나미비아에서 온 아프리카 친구들이 이해하는 중국, 같은 중동국이어도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친구들이 이해하는 중국, 그리고 종교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의 중국인 친구가 이해하는 중국, 학교 식당 근로자로 일하는 중국인이 생각하는 중국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중국에 대해서 한가지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생각이었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의 옌칭 대학원에서 진행했던 “YGS, Yenching Global Symposium”을 통해 전세계에서 100명이 넘는 다양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과거의 실�크로드부터 현재의 미중경쟁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하며 학문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폭넓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지 느끼며 소통을 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



다. 사람들의 동의 없는 방안의 추진은 독단에서 비롯되는 오류이며 소통과 동의를 통한 해법이 협력으로 나아가는 열쇠라고 느꼈습니다.

북경대는 직접 갈 수 있는 덕분에 자금성을 비롯하여 베이징에 있는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자금성에서 같은 국제관계학과 친구들과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역사설명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의 경복궁만해도 얼마나 많은 과학적 해안이 녹아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자금성 또한 수많은 과학적 바탕과 스토리들이 녹아 있는 것을 들으며 코로나가 끝나면 아직 가보지 못한 일본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의 역사가 녹아 있는 왕궁을 방문하며 과거 선대분들이 남긴 유산의 흔적을 느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2022년 가을학기)

일본과 중국에서 2년 간의 복수학위 석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정말 다양한 특강과 초청강의,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이 수준 높은 수업만큼이나 다양하게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논문의 방향이 한국과 동북아의 외교에 관한 것이기에 일본과 중국에서 수학하지 못한 한국의 외교정책과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요, 수업 외에도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 중국의 공산당 체제, 일본의 외교정책,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합의,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정책, 한국과 일본의 여성인권, 유

럽의 역사, 인공지능과 미래의 인류와 같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강과 초청강의를 들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고민하고 협력하는지를 배우며 배움과 소통 그리고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학기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았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직접 만나지 못했던 같은 캠퍼스 아시아 동기들을 드디어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쿄대와 북경대에서 서울대로 수학하러 온 친구들과 이번 1박 2일간 경주여행을 떠났는데요 8명의 사람들과 여행을 하며 친구들에게 신라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밤을 새워 게임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같이 공부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어 참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의 매력 중 하나는 같은 방향을 향해 꿈꾸고 어깨를 나누며 보폭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아시아를 통한 유산과 미래의 참가자분들께

제가 얻은 첫 번째 유산은 바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미래의 캠퍼스아시아 참가자분들께 공부와 동시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이 가진 생각의 한계를 타파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캠퍼스아시아와 같은 프로그램은 자신이 가진 생각의 한계를 부수고 더 나아가 협력이라는 인류가 처한 숙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좋은 순풍을 불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는 친구들과 그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절대 책이나 논문, 설문조사 등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가치이며, 친구들이기에 본인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도 아낌없이 편견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히 말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절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단연 훌륭한 교수님들과 수업의 질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학문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교류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연구해볼 수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캠퍼스 아시아는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소양도 기르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이며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으로 너무나 좋은 지식들과 조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외에도 다양한 초청강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수업 외에도 다양한 지적교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공부에 힘써서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어

와 중국어가 부족해서 주로 영어로 친구들과 동기들, 교수님들과 교류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언어만큼 보이는 세상이 다르다는 말처럼 미래의 학우님들께서는 기회가 되시면 일본어와 중국어로 지역민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꾸밈없는 의견과 실상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2년 반 동안 한중일 각 캠퍼스에서 수학하며 동북아시아라는 막연한 호기심에서 동북아시아와 그를 넘어 아시아의 교량을 잇는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꿈을 구체화하게 한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캠퍼스 아시아를 생각하고 계시는 미래의 참가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신청하셔서 본인의 꿈에 날개를 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씬머스쿨(SDC)을 마치며..

박수연 | 부산대학교

●●● 사업단 | 부산대 건축학과

일본으로 떠나기 전

4학년 여름, 계절학기를 열심히 다니던 중 캠퍼스아시아 워크샵을 추가모집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4학년 1학기를 복학하며, 한 학기 내내 나는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드는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너무 작다는 것이다. 학기 말 지도교수님과 이런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교수님은 내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잘한다며, 주변과 많이 이야기해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해보라고 하셨다.

교수님의 상담과 내 고민이 뒤섞이던 와중에 마침 캠퍼스아시아 여름 워크숍 (SDC)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 지원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직접 참가해본 교우들은 알겠지만, 매우 유용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얻어가는 것이 많다. 우선 나는 부산을 벗어나 타국 학생들의 설계가 매우 궁금했고 타국의 학생,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설계의 결과물 뿐 아니라 그 과정과 소통

의 방법도 궁금했다. 또 건축에 대한 내 마음이 궁금했다. 건축학과에 온 사람이라면 통과의례와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의 도시를 설계한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다. 보다 큰 규모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복합적인 이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였다. 설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험하는 것이 내게 큰 귀감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본에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캠퍼스아시아 사업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비자를 발급받거나 해외 입국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보는 과정도 유익했다. 그렇지만, 얼른 팬데믹 상황이 나아져서 전처럼 쉽게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일본 큐슈대에서 시작된 SDC(Sustainable Design Camp)

공식 일정의 전날에는 캠퍼스를 투어하며 큐슈대학교의 역사와 구조, 실험실이나 현재 성과와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8월 초의 후쿠오카는 매우 덥고 습한 날씨였던 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슈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리를 인솔하시고 열정적으로 큐슈대학교와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특히, 구조실험실에서 설명해주신 지진에 대한 연구와 직접 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큐슈대는 대학원 진학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던 게 인상적이었고 현지에 계신 조교님의 도움으로 제도실이나 연구실도 간략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건설관 뿐 아니라 중앙도서관이나 Shikii Hall, 전망대 등 큐슈대 Ito캠퍼스의 여러 건물들을 다양하게 둘러보았다. 학교가 후쿠오카 지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어 부지가 크고 건물의 규모나 공간감이 우리 학교보다

훨씬 컸다. 다른 일본의 건물들에서도 느꼈지만, 공간감이 큰 곳은 완전 크고 작은 곳은 필요한 만큼의 크기만 쓴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간 느꼈던 공간감과는 달라서 건물의 볼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Shikii Hall의 큰 콘크리트 벽과 대강당이 필요에 따라 작은 강의실로 쪼개질 수 있게 설계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전망대에 올라가서는 큐슈대학교의 전경과 인근의 풍경을 둘러보고, 큐슈대 부지에서 발굴된 문화재도 볼 수 있었다.

10일간의 디자인 캠프는 일정 후반의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팀플을 하고 오후에는 발표와 크리틱이 있었다. 휴일을 제외하면 약 7~8일간의 일정이었다. 큐슈대, 동제대, 부산대 외에도 몇몇의 학교가 더 참여하고 있었고 다양한 국가의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다. 8~9명이 한 팀을 꾸렸고, 내가 속한 팀은 온라인 참가학생 3명과 오프라인 참가학생 5명이



큐슈대 캠퍼스투어

함께하게 되었다.

특강 후 내가 첫 번째로 느낀 감정은 당황스러움이었지만 이내 이조차 좋은 기억과 경험이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부분의 강의가 일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었지만 큐슈대에서 진행되는 수업인 만큼 대부분이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물론 중간중간 영어 수업도 있었고, 줌을 통해 간단한 번역을 해주시던 수업도 있었다. 또 한 가지, 우리 팀은 일본인 3명과 한국인 2명이었는데 일본 친구들이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다. 다행히 같이 갔던 부산대 친구가 일본어를 잘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번역을 해주는 일도 잦았고, 번역기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었다.



큐슈대 현장에서 함께 한 우리 팀원들

소통에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었지만 내 의견을 빠르게 전달할 수 없을 뿐, 팀원과 소통하고자하는 의지로 이 문제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처음 느낌 감정은 당황스러움이었지만, 나중에는 일본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소통이 꼭 말을 청산유수로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

다. 또 다른 언어에 대한 호기심까지 생겼다. 실제로 나는 일본인 친구 중 한 명과 쉬는 시간을 활용해 언어 교환을 하거나 일상에 대해 조금씩 수다를 떨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난 팀원들은 매우 부드럽고 친절할 사람들이었다. 언어에 장벽은 있을지라도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합당한 설계의 목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우리 팀은 이토시마의 작은 마을 '이키산'을 맡게 되었다. 바다와 논, 밭이 있고 신사와 일본식 고택, 그리고 주택이 모여 있는 시골 마을이었다. 아침 9시부터 수업과 현장답사, 인터뷰, 회의 등을 하고 4~5시쯤에는 크리틱을 받았다. 한국인 팀원과 휴일에 따로 현장에 가서 현지인과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였는데, 다행히 팀원 친구가 일본어에 능숙했기에 드문드문 인터뷰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함께 '이키산' 역에 앉아 질문지를 준비해보고 마을을 돌아다녀 보았다. 이 날 역시 햇빛이 매우 강렬했기에 마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인터뷰는 다소 힘들었다. 작은 슈퍼의 주인 아주머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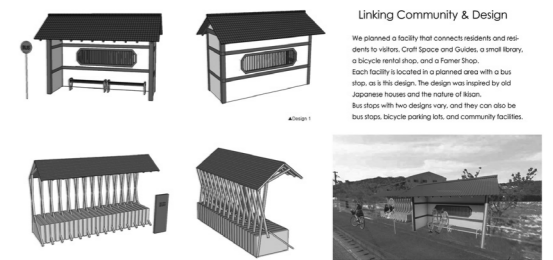


이키산 마을 답사

'이키산' 역을 지나는 학생 한 명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주민분들이 인터뷰에 호의적이지 않았기에 번역기로 자기소개를 하고 설득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다소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키산'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 기억에 남는 하루였다.

우리 팀은 크게 3가지 바다, 논밭, 고옥(역사)에 집중하여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였다. 그중 나는 넓은 농경지라는 마을의 아이덴티티와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시설을 개발하는 일을 맡았다. 현장답사를 갔을 때 매우 덥지만 중간중간 쉼터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아쉬워서 현재는 문이 닫혀 있고 노후된 공민관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고옥과 바다를 잇는 길에 넓은 농경지의 풍경이 아름답기에 이를 고려하여 버스정류장과 마을의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였다. 버스정류장과 커뮤니티 시설은 마을의 유명한 고택과 '이키산'의 자연을 담도록 디자인 하였다. 우리 팀은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았기에 각자 익숙한 툴을 사용하였고, 나는 디자인에 스케치업을, 다이어그램이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포토샵을 활용하였다. 팀원들은 캐드와 라이노, 루미온 등을 더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식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크리틱을 받으며 디벨롭하였고, 팀원들에게도 크리틱을 부탁하여 피드백을 받아 진행하였다. 앞서 말했듯 팀원들은 부드럽고 친절할 사람들이었고 응원을 많이 해주어 고맙고 즐겁게 작업했다.

코로나로 인해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팀원들도 있었다. 아무래도 온라인/오프라인 팀이 나뉘어 작업하게 되었고, 즉각적인



Linking Community & Design

We planned a facility that connects residents and residents to visitors, Craft Space and Guides, a small library, a bicycle rental shop, and a Farmer Shop. Each facility is located in a planned area with a bus stop, as is this design. The design was inspired by old Japanese houses and the nature of Iki-san. Bus stops with two design-ways and they can also be bus stops, bicycle parking lot, and community facilities.



- IkiSunset -
Renovate strategies

1. Change abandoned restaurant into architecture that opens to the city
2. Focusing on cyclists and pedestrian (especially neighborhood residents)
3. Maximize potential of the site (beautiful ocean and sunset scenery)

우리 팀이 제시한 '이키산' 마을의 지속가능한 설계 아이디어



최종 발표하는 우리 팀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건축이나 도시전공이 아닌 팀원도 있었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팀장이 난감해하면서도 의견들을 수용하는 모습에 나도 따

라 수용하고 응원하게 되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나 협업하는 과정에서의 수고는 있었지만, 배울 점도 그만큼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국가의 팀원들과 작업을 하다 보니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더 배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었던 듯하다. 최종 발표에서 우리 팀은 각자 맡은 부분을 영어로 발표하였다. 열흘간 팀원들과 소통하거나 발표를 하는 동안 영어를 사용하기에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 조금은 긴장했지만 잘 마칠 수 있었다. 사실 지나고 보니 모든 시간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최종 발표하는 우리 팀

프로그램 공식일정 외 시간에 대해

숙소는 큐슈대학교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떨어진 위치의 지쿠젠 마에바루의 호텔이었다. 학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8시 30분 정도가 되었다. 저녁 시간에는 개인 정비와 식사 시간을 가졌다. 같이 일본에 가게 된 부산대 학우들과도 거의 초면이었기에 한 번씩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일본에 가서 맺어지는 인연이라 빠르게 친밀감을 쌓았다. 서로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고, 모르는 것이나 난처한 일이 생기면 서로 앞장서서 도와줬기에 고마움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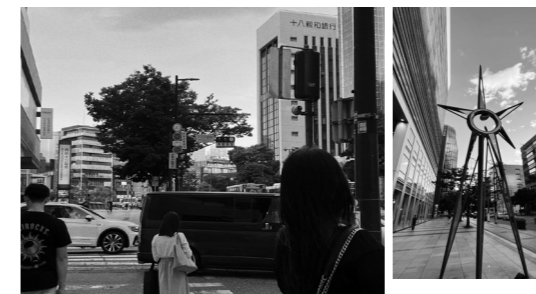


휴일에 기본 인근 바닷가와 마을의 고즈넉한 주택

마에바루의 가게들은 웬만해서는 6시쯤 문을 닫기에 선택지가 많이 없었다. 그 중 한 식당을 자주 방문하게 되어 사장님과 직원분들과도 친해졌다. 함께 SDC에서 만난 인연들도, 우연히 가게에서 만난 인연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았다. 마지막 밤에 방문했을 때는 음식 값도 받지 않으시고, 유니폼도 선물로 받아 정말 감사했다. 마지막 날에는 어느 빙수 가게를 방문했는데 빙수가 품절되어 먹을 수 없었다. 전에도 브레이크타임에 걸려 못 먹고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시고는 마지막 날이라고 빙수를 만들어 주셨다. 휴일에는 이토시마를 산책하고 인근 바닷가를 가기도 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는 곳마다 내게 말을 걸어 왔다. 정말 아쉬웠던 건 일본어를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것이다. 번역기를 사용해서 소통했지만, 현지인들이 매우 친절하고 정이 많아 따뜻한 기억이 많다. SDC 프로그램 외에도 팀원들과 수다 떨거나 현 지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타국으로 워크샵을 가면서 얻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토시마를 산책할 때는 정말 평범한 주택가와 마을을 돌아다녔다. 일본식 기와지붕을 가진 집들이 많고, 작은 마당을 낀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였다. 작은 마당 덕

분에 식물들이 집집마다 매우 많았다. 나는 한국에서는 항상 도심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단독주택가를 구경하는 것이 신선했다. 마에바루는 꽤 외곽지역이고, 마을을 조금만 벗어나도 논밭이다. 일본에 여행 차 왔으면 이런 구경을 놓쳤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기분 좋은 산책이었다.

후쿠오카 시내의 명소들도 몇 군데 방문하였다. 에크로스 와 오토리 공원, 후쿠오카 타워, 텐진의 다이묘 거리 등을 방문했다. 일본의 거리에서는 보다 직선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다. 특히 후쿠오카 타워는 우리나라의 타워들과는 확연히 그 느낌이 두드러졌다. 직선적인 건물들이 모여 있으니 일본의 반듯한 도로와 어우러져 일본 특유의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었다. 또 부산의 거리보다 따뜻한 톤이었다. 외벽이 유리인 건물들도 후쿠오카의 선셋과 주변의 따뜻한 건물의 색들을 반사하여 따뜻하게 느껴졌다. 물론 청명한 하늘과 풍성하고 푸른 가로수와 어우러지는 건물들도 있었다. 외장재에 타일을 쓰는 건물들이 꽤 자주 보였는데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외관이 아주 깔끔했다. 오토리 공원은 생각보다도 규모가 훨씬 큰 공원이었다.



후쿠오카 시내 텐진 거리



오토리 공원

조깅을 하는 주민들과 수풀 사이에 앉거나 누워서 쉬는 주민들이 있었다. 공원의 외곽을 걷다 보니 목마를 즈음마다 작은 로컬가게들이 있었다. 더운 날씨 덕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공원 길 가운데에는 자전거와 보도를 구분하는 식물들이 있었다. 풋말과 함께 있는 식물은 그 성장 정도가 달랐다. 더 걷다 보니 물을 주는 물조리개를 옆의 도구함에 넣는 사람을 보았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공원에서 각자 식물을 키우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재미있겠다는 영감을 얻었다. 공원을 걷는 사람들은 여유롭고 편안해 보인다. 날씨는 살인적으로 더웠지만, 오토리 공원을 걷는 사람들도 그랬다. 일본의 분위기와 건물들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느낀 점 - 새로운 '나'로의 확장

이번 워크샵은 내게는 첫 일본 방문이었다. 워크샵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고, 내가 그간 해오고 있던 활동이 많아 바빴던 탓에 어학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다. 또 영



나의 성장일기

Kana Yuki | Ritsumeikan University



어 실력에 자신감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 가보니 어학 실력보다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했다. 나는 영어를 훌륭하게 해내지는 못하지만 의견을 확실히 어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뽐게 되었다. 팀워크는 영어시험이 아닌, 소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어필하고자 한다면 팀원들도 나의 의견을 이해하고자 하지, 내 영어 실력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물론, 정확하고 간결한 의견 전달을 위해서는 어학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주간 느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일본어를 공부해가지 않은 것이다. 팀원들 간의 소통 뿐 아니라, 학교생활 외에도 매점에 가거나 호텔에서 일하는 필요하기에 해외에서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한 곳을 떠나 2주간 해외에 머무르는 경험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내 세계를 확장해주었다. 나는 이번 워크샵에 친한 동기가 한 명, 나머지 여섯 분은 거의 초면이었다. 각기 다른 8명은 각기 다른 8개의 스케줄을 소화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일본 현지인들 뿐 아니라 함께 간 사람들과도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하루는 동기의 노트북 필기 펜의 배터리가 다 닳았고, 그 배터리는 구하기 매우 어려운 규격이었다. 동기는 팀원의 도움을 받아 마트에 전화를 돌렸지만 배터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휴일에 마트에 건전지를 찾아다녔다. 그렇지만 구할 수가 없었기에 그만두고 바닷가에 같이 산책 가자고 했다. 동기는 건전지를 찾으러 다

른 마트에 가겠다고 했다. 팀원들의 도움이 고마워서 열심히 배터리를 찾아보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때 나는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홀로 바다로 가는 버스를 탔더니, 동기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다. 사실 타인은 완벽히 이해할 수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에도 그랬던 것 같다. '왜 건전지를 찾아 소중한 휴일에 마트를 가지?' 라고 생각하면 동기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동기는 타인과 동기에게는 건전지를 찾는 것이 혹은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설령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그런 것이다. 실제로 내 동기는 느리지만 낭만 있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이런 경험들의 연속이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내게는 너무 즐거웠고, 스스로를 성찰해보게 되는 계기였다. SDC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건축적으로 공부하는 기회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웠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다. 주변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임 없이 추천해줄 것이다!

●● 사업단 |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제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지원한 동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중일의 복잡한 국제관계와 각 나라의 문화,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유학을 경험한 후 제가 무엇을 얻고, 4년 후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쓰메이칸 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정하고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쯤 세계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코로나 19 유행입니다.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저는 대학 1학년 초반을 온라인 수업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동급생과 처음 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2학기가 되면서 수업체제가 완화된 후였습니다. 1학년은 대학생으로서의 기초 수업과 더불어 중국어, 한국어 습득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어는 상급 수업을 듣고 중국어는 초급 수업을 들었

습니다. 입학 초기에는 CAP의 특별한 학습 상황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 면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공부보다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에는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1학년 20명 중 절반과 함께 유학생생활을 하고 나머지 절반과는 거의 만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교우관계를 좁혀서는 유학 때 혼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더욱이 CAP 이외의 학생들과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의 소통할 기회가 없었기에 대학생활에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위에 말을 걸어 자신 이외의 19명 모두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주위의 시선을 끄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던 저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바보같은 고민이지만 당시의 행동은 저를 크게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친구가 많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 유학

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인 적극성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의 노력 덕분인지 유학 조 편성은 혼자가 될 걱정은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학기에 한국으로, 2학기에 중국으로 파견되는 순서로 2, 3학년 유학생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으로의 파견은 유감스럽게도 중지되어 온라인 유학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매 학기 유학생들을 자세히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학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알게 된 중국문화와 중국인과의 교류, 한국에서 직접 듣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기숙사에서의 집단 생활 등 저에게 유학하면서 보낸 시간들은 모두 새롭고 매일이 모험 같았습니다. 외국인과의 교류하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새롭게 바뀌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를 경



험하고 한 해가 지난 후 저는 두 번째 유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학년 유학, 특히 2022년 2학기에 경험한 것들은 저의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3학년으로 진급하고 보통 대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시기, 그런 시기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장래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저는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할지 취직 활동을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대학원 진학을 1학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급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서의 유학은 저를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진로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내놓고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인지 밖에 나가기 싫어서 유학중 많이 놀러 나갔던 작년에 비해 대학이나 기숙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어디 나갈 때마다 "나는 여기 놀러온 게 아니야, 공부하러 오는 거야"라고 마치 놀러가는 것이 나쁜 일인 것처럼 제 자신에게 타일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은 실패였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강의 중 어떤 교수님이 "유학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교류하고 놀고 공부하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걸까? 유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가는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기숙사에 돌

아가서 혼자 있는데 시간을 쓰고 있잖아.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제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왠지 기숙사에 틀어박혀 있던 시절보다 오히려 의욕이 생겨서 새로운 저로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룸메이트인



중국 친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새벽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면서 월드컵을 관람하고 서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또 친구뿐만 아니라 교수님과의 교류도 깊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듣고 있던 수업의 담당 교수님께 진로 상담을 부탁드리고, 일본의 대학 선생님께도 화상 통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고 교수님들의 학창시절 이야기 등을 듣다 보면 나는 아직 미숙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병아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아직 내가 모르는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불안하다면 그것을 능가할 만큼의 지식을 갖추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부딪혀 보려고 저는 대학원 진학이라는 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만 교류해온 제가 인생 선배인 어른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또 하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의 유학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유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유



학을 통해서 생긴 중국과 한국의 친구, 어른의 존재는 캠퍼스 아시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 덕분에 넓은 시야와 다양한 각도에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 유학으로 이문화 교류를 실제로 체험하고 친구를 사귀며 즐거운 유학생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유학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만나 고민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유학 덕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시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세요”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동기나 장래희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거기에 우열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끼리 아니라 다양한 생각, 꿈을 가진 사람과 국적을 넘어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살다 보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유행과 함께 저의 대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CAP에 참여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CAP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후회라는 말이 머리에 나오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결코 촌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앞으로 참가하게 되는 여러분이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나 주변 어른들과 교류하면서 스펀지처럼 많은 것을 흡수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2022 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우수

캠퍼스 아시아를 통한 성장
이서현 성균관대학교

잊지 못할 워킹&스터디 맘의 첫 해외 워크숍
김홍선 부산대학교

캠퍼스 아시아와 나의 성장
김요재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2021-2022 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JAPAN



KOREA



CHINA

캠퍼스 아시아를 통한 성장

이서현 | 성균관대학교

●● 사업단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

교환학생은 어렸을 적부터 나의 로망이었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에 입학하자마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선배들이 글로벌리더학부에 재학 중이며 법 과목 수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국비 장학생 자격으로 법적 교환학생을 가는 것을 적극 추천해 주어서 특히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오랫동안 희망해왔던 교환학생의 꿈을 반쯤 접은 상태였다. 하지만 2021년 2학기부터 다시 각 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다시 한번 교환학생을 준비하게 되며 2022년 2학기부터 싱가포르 국립대 법학부가 CAMPUS Asia 프로그램에 합류해 파견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해 지원하게 되었다. 우선 싱가포르는 이중언어정책을 시행해 중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이기에, 싱가포르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한

다면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실력의 향상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특히 싱가포르가 최근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국제 중재 허브로 급부상하며 국내의 대형 로펌들이 싱가포르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뉴스들을 통해 접했다. 이에 싱가포르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특히 아시아 1위이자 세계적 명문대학인 NUS법학과에서 학부생 단계에서 법학 수업을 수강한 경험은 법조인을 꿈꾸는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생애 첫 외국 생활 헤쳐나가기>

이전까지 해외여행을 간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외국에서 오랫동안 혼자 체류한 적은 한번도 없었기에, 타지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막연히 했다. 그러나 코로나에 의한 규제가 풀린 직후인 2022-2학기에 약 2500명 정도의 교환학생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며, 주거 문

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국제처, 법학부, 캠퍼스 아시아 담당처 등 여러 군데 문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추가합격이 되지 않았다. 이에 약 2주간은 여러 사이트들을 전전하며 방을 찾았지만, 4개월 단기임대를 받아주는 곳은 흔치 않아 중간에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 운 좋게도 나름 적당한 값의 좋은 방을 찾았지만, 집을 실제로 보지도 못한 채 온라인으로 단기 임대차계약서를 사인하고 보증금을 납입해야 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을 찾아보며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 등이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는지도 따져보았지만, 혹여나 집 주인이 기분 나빠 갑자기 집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등 불안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보지도 못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모두에 동의하는 등 떠나기 직전까지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같이 사는 집주인 분들은 매우 좋은 분들 이었다. 이들은 중국계 싱가포르 노부부였는데, 중국어를 꾸준히 배우는 중이라고 말씀 드리니 매우 좋아하시며 중국어로 스피치토크를 나누기도 했으며, 중국 요리도 종종 해주시는 등 거주하는 기간 동안 부모님처럼 알뜰히 챙겨주셨다. 무엇보다 옆방에 사는 필리핀 친구 렉시를 만난 것은 교환학생 생활 전체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 렉시는 나와 같은 학기에 파견 온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환학생이었는데, 이전부터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처음에 k-pop이나 k-drama, 한국 음식 등에 대해서 얘기하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다. 조금 더 친해진 이후에는 삶의 태도 및 가치관 등의 깊은 얘기들도 하였는데, 전혀 다

른 국가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너무나 얘기가 잘 통해서 신기했으며, 이런 마음 맞는 친구가 하우스 메이트여서 너무 든든했다.

‘거주할 집을 찾으려다가 집 찾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낯선 곳에서 생활을 혼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절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현 시점에도 선명히 기억난다. 그러나 오히려 집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며, 낯선 환경에서도 혼자 난관을 헤쳐나가는 법, 다른 이들과 함께 서로 배려하면서 생활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너무나 좋은 인연들을 만들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종종 해주시던 중국식 요리

렉시와 함께한 여행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의 공부

싱가포르 국립대 법학부에 파견 된다면,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필수 수강 수업 등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기에 자율적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 법학부의 경우, ‘국제형 공법, 국제우주법, 국제해양법, 국제환경법, 국제사법,

국제형사절차법...’ 등 정말 다양한 국제법 수업들이 열리곤 한다. 한국에서는 학부생 신분에서 수강이 불가능한 다양한 특별법 수업이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큰 메리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강한 법학 과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국제상사중재법)’ 수업이었다. 지난 해 법무부 주최 법령경연대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중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고민해보며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ADR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자 하여 국제상사중재법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다. 특히 싱가포르의 지리적 특성상 금융거래 및 중개무역이 활발하여 국제상사중재가 매우 발달한 국가이므로, 해당 수업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인기 있는 수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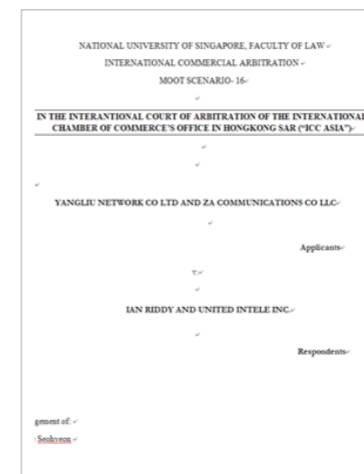
부푼 기대를 안고 첫 수업에 들어갔지만, 해당 수업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한 수업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때 대학생들 중에서 영어를 꽤 잘한다고 자부해 왔지만, 싱가포르 특유 억양이 녹아있는 싱글리쉬 발음과 어려운 법률 영어, 그리고 일반적 소송 법리와는 상이한 국제상사중재 법리, 이들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인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특히 싱가포르 국립대는 3, 4학년 학부생과 석사과정 수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데, 이때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 중 반 정도는 스위스 중국 일본 등 해외 각국 변호사 출신의 석사 과정 학생들이었으며, 이에 더해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센터(SIAC)의 중재위원들도 있었다. 수업을 잘 따

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과 나 자신을 계속 비교하며 위축되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CAMPUS Asia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하였던 때의 간절고도 동시에 호기롭던 마음가짐을 잊지 말자’를 계속 되새기며 수업 내용을 모두 녹음해서 수업 이후 다시 들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수업 이후 교수님께 따로 질문을 드렸다. 또한 영어 원문 교과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을 통해 국제상사중재법 전자책 및 여러 논문들을 빌려 읽어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였다.

한편, 이 수업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중간고사가 조별 모의재판 및 이에 대한 개인 보고서로 대체된다는 것이었다. 이 역시 한국의 학부 법학수업 시간에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나는 중재인을 배정받게 되었는데, 중재인(arbitrator)의 경우 모의재판 직전까지 모의재판 문제를 제외하고는 각 측이 작성한 서면을 읽어볼 수 없었고, 양 측의 변론이 끝난 즉시 arbitrator’s decision을 작성해서 발표해야 했기에 다시 한번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재판 케이스의 쟁점으로 주어진 “1) 해당 중재가 제기된 ICC ASIA에 관할권이 존재하는가? 2) 동사안의 A 중재인이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추었는가? 3) 동사안에서 제기된 임시적 보전조치는 타당한가?”에 대해, 문제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 측에서 어떤 논리를 펼칠 것인지 모든 가능한 주장과 근거 및 관련 케이스들을 모아 비교 대조해보며 리서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재판 당일 떨지 않고 논리적인

로 나의 arbitrator’s decision을 잘 발표할 수 있었다.

국제상사중재법 수업을 통해 이처럼 학문적으로도 성장하였지만, 특히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수강신청 이전에는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수업에 대한 이전 수강생들의 시험 팁, 교수님의 수업 방식 등의 사전적 정보를 가지고 수강신청하였고, 시험이 다가오면 선배들의 자료 및 족보 등을 참조해 시험을 준비하는 등, 모든 동기들 역시 그러하기에 당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나는 매우 타성적으로 공부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그 어느 것도 없었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쳐 나가야 했다. 특히 법조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 자율적으로 사고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업을 계기로 이런 점이 조금이나마 개발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제출했던 arbitrator’s decision의 표지

한편, 교양수업으로 중국어를 수강하면서 중국어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2외국어가 중국어였고, 대학교에 와서도 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중언어정책을 사용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가 생활 전반에 녹아있는 국가이기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파견된다면 반드시 교양수업으로 중국어를 수강해 스피킹 및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Chinese5를 신청하였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법학 캠퍼스(Butit Kimah Campus)와 메인 캠퍼스가 나뉘져 있었기에, 전공 법학수업들이 끝난 뒤 바로 버스를 타고 중국어 수업을 들으러 약 30분 거리의 메인 캠퍼스에 가야 했다는 것이다. 체력 소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 꾸준히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한국의 중국어 교육법은 주로 독해와 문법 위주이기에, 독해실력에 비해 말하기, 듣기 실력이 월등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중국어로 문장을 구사하려고 하면 위축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중국계 싱가포르인이 인구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어가 필수적이었다. 마트에서 계산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중국어 사용 빈도를 점차 늘려가기 시작했고, 중국인 교환학생 친구들과도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언어적 자신감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4개월 동안의 짧은 시간이기에 비약적 발전까지는 아니나, 파견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 hsk6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의 실력 향상이 체감되고 있다.

이처럼 교환학생 시절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값진 경험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성적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만 추구하고 안정적 루트만 고수했지만, 교환학생 시절 동안에는 나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고찰하고 사색하며, 다양한 난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화로운 다문화 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대표적 다민족 국가로,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에서만 쪽 살아온 나는 싱가포르 곳곳을 다닐 때마다 다문화적 요소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호커센터였다. 호커센터는 공동의 식사공간을 가운데 두고 가판형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식당가로, 각 지역마다 최소한 하나씩은 꼭 있는 지역 내 공동체 식사공간이다. 호커센터는 한 공간에서 인도 음식인 프라타부터 말레이 음식 나시레막까지 싱가포르인 입맛에 맞게 약간씩 변형된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들을 맛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의 식사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결속성을 강화하는 공간으로서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이후 집주인 가족과 주말에 동네 호커센터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러한 호커센터는 조화롭고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를 견인하는 역할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까지 등재되었고 집주인 가족을 포함한 많은 싱가포르인들이 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알게 되었다.

호커센터 이외에도 싱가포르 곳곳을 관광하면서 곳곳에 녹아있는 다문화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리완유 정부 때의 초대 도시계획정책으로 인해 싱가포르에서는 각 민족들간 주거지역이 뚜렷한 경계를 보이지 않고 융화되어 살아가나, 차이나 타운·리틀인디아·아랍스트리트 등 각 민족의 주거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들이 존재한다. 이는 싱가포르 내의 주요 관광지들이기도 한데, 한 국가 내에서 문화권 별로 두드러지는 건축 양식 및 종교 사원들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히 리틀인디아 역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인 스리마리아만 사원에서 십분 정도 걸으면 이슬람교 사원인 술탄모스크 사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지하철 10분 거리에 거대한 불교사원인 불아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매우 놀랐던 것 같다.

최근 많은 다민족 국가들에서 민족 간 분열들을 목격하기 쉬운데, 싱가포르에서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이는 싱가포르의 정부 및 개개인들이 다양한 문화들의 독자성을 인정하며 존중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4가지 언어가 모두 공용어로 공공시설에 병기되어 있으며 디파발리, 중추절, 석가탄신일 등 다양한 민족, 종교별 행사들이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었다.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명절인 중추절 때는 차이나 타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전역에서 중추절 음식인 월병을 팔고 야시장 등이 열렸으며, 힌두교 명절인 디파발리는 국경일이기 까지 하였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싱가포르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며,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접할 수 있었다. 중국계 싱가포르인 친구와 중국 본토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에게 각각 중국의 코로나 정책과 대만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묻고 서로 얘기를 나누어보기도 하는 등 한국에서는 쉽게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친구들 의견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기는 지점들에서 정치·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해당 문화권의 학생들에게서 직접 들으며 내 생각을 정리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교환학생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슬람 사원인 술탄 모스크



힌두교 사원인 스리마리아만 사원



친구들과 함께한 맥리치 등산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맺은 여러 인연들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큰 장점은 CAMPUS Asia 프로그램이라는 정체성인 것 같다. 싱가포르 국립대 파견이 확정된 이후, 파견 직전 학기였던 2022-1 학기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비교정치론을 함께 수강하고 있었던 인민대학교 법학부에서 온 '일락'이를 만나게 되었다. 같이 밥도 여러 번 먹으며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활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락이는 한국어에 관심이 많고, 나는 중국어를 배우던 참이었기에 함께 언어교류를 하며 친해지게 되었다. 떠나기 전 일락이가 중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황금색 책갈피와 손편지를 깜짝 선물해주어 정말 고맙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교환학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2022-2학기에 CAMPUS Asia 프로그램으로 성균관대에 파견된 싱가포르 국립대 법학과 학생들과 함께 친해지게 될 기회가 있었다. 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싱가포르 국립대와 성균관대의 생활 전반 및 각자의 국가에서 생활하며 느낀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 정치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또한 모두들 법조인을 지망하다 보니, 비슷한 진로와 가치관을 가져 더욱 이야기가 잘 통하기도 하였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학교에서 교환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들과는 아쉽게도 이 때 한 번밖에 보지 못하였으나, 이후 SNS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의 행정처리 등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는 등 고마운 인연이 되었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와 같이 함께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소속감 및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고마운 CAMPUS Asia

국비 장학생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많은 동기가 CAMPUS Asia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적극 추천하고 있다. 우선 장학금이 지원되기에, 조금이라도 교환학생 생활에 있어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사업단을 맡고 계시는 권철 교수님과 류일현 박사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교환학생 생활 내내 심적으로 안정되었던 것 같다. 특



히 성공관대 CAMPUS Asia 사업단을 맡고 계시는 학장님, 교수님, 박사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힘써주시며 상호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점이 체감되었기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나 역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싱가포르의 경우, 2022-2학기 처음 합류했기에 기존의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의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였다. 이를테면, CAMPUS Asia 프로그램의 경우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 (공통법 형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일본·중국에서는 CAMPUS Asia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편성해 국가 간의 법제 사이의 비교법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커리큘럼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다소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개설된 정말 다양한 국제법 수업들을 통해서 국제법이라는 큰 틀 안의 특별한 법들까지 세밀하게 공부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의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견해를 나누어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물론 비록 4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점차 성장해나가는 내 자신의 모습에 계속 놀라하는 하루하루가 되었고 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터닝 포인트였다고 자부한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잊지 못할 워킹&스터디 맘의 첫 해외 워크숍

김홍선 | 부산대학교

●●● 사업단 | 부산대 건축학과

지원동기 및 절차

전통건축관련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공부를 이어오면서 외국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다. 여행으로 접하는 것 외에 학교를 통한 수업이나, 직업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 대학원에 들어왔다. 석사를 취득하면 전통건축수리기술훈재단에 입사해서 북한이나 중국에 파견되어 개마고원이나 장군총과 같이 한국 영토 밖의 우리문화재를 수리하는 로망이 있었다. 하지만 나의 계획과 달리 신의 축복으로 석사 4학기에 아기가 찾아왔다. 출산 직후에 논문을 쓰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일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히기 위해 박사과정에 들어왔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공부까지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양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잠시지만 육아와 가사에서 해방되어 좋았다. 틈을 내서 공부하는게 얼마나 좋은지 공부가 재미있는 지경까지 왔었지만, 지도교수님께서 장학금을 받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1학기 때 휴학을 했을 것 같다.

그렇게 학교생활을 하던 중 캠퍼스아시아 여름캠프가 일본 규슈대에서 열린다는 공지를 본 날! 나는 머리도 못 감았고, 과제는 밀려 있었으며, 양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눈으로는 아기를 돌보고 있었기에 신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논문연구 시간에 지도교수님께서 올해는 특별히 파견지원자를 예년보다 많이 받아서 신청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니 한번 해보라고 하셨다. 내가 항상 외국학교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것 같았다. 사실 교수님은 알려만 주신 거였지만 나는 너무 가고 싶어져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한번 부딪혀보자며 시어머님께 부탁을 드려 어머니가 아기를 봐주기로 하셨다. 여기까지는 해결이 되었지만 회사에 말하는게 몹시 걱정이 되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쿨하게 사장님께서 일정만 물어보시고는 잘 다녀오라고 하셔서 긴 여정을 시작할 수 되었다.

사실 나는 언어에 자신이 없었고, 같이 가는 친구들

중 많게는 15살 이상씩 나이차이가 나는 학부 학생들도 있었기에 어린 친구들이 불편해하면 어쩌나 어려움으로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더이상 두려워한다면 앞으로 한보의 진전도 없을거라는 생각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문화재 수리의 선진국이자 바이블인(자존심 상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재 시스템은 일본의 것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일본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다. 캠퍼스아시아 매니저이신 이영인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개인톡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언어와 프로그램이 능통한 지에 대해 물었고 나는 썩 자신이 없지만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북돋아 주셔서 참 감사했다.

학업과 회사일, 집안 행사, 육아가 바쁘게 돌아가더니 정말로 일본으로 떠나는 날이 왔다.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시골사람답게(나는 합천의 산골에서 태어나고 5살때까지 자랐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모두에게 감사했고, 오늘이 고맙고 좋았으며 아기에게는 미안했다.

시작된 일본에서의 시간

이번 여정에는 꽤 긴 자유시간이 있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행 편수가 줄어들어서 금요일에만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덕분에 SDC 스케줄보다 며칠 일찍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 호텔은 이토시마현의 지쿠센마에바루에 있었는데, 작고 단정한 비즈니스 호텔로 개인 방을 쓸 수 있게 지원을 받았기에 매일 밤 편하게 쉴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한적한 작은 마을이라서 심심했었는데, 두 주간 지내다 보니 마을 곳곳이 단정하고 예뻐서 대부분의 음식점이 맛이 있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술집은 11시, 밥집은 8시면 문을 닫고, 카페는 6시, 선물 가게들은 4~5시면 문을 닫았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곤 했다. 가게들은 더위와 코로나 여파로 힘들다고 했지만, 사장님들께서 곳곳하게 버티고 있는 느낌이었다. 휴일에는 마을을 탐방하며 시택과 친정에 가져갈 선물을 구매했는데, 한 기모노 가게에서 유카타를 저렴하게 판매해서 한 벌을 사 입었다. 사장님은 번

역기를 이용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꽤 여러 벌의 유카타를 골라서 착장시켜 주셨는데, 오비를 매어 주실 때에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예쁘게 모양을 내서 성심성의껏 묶어주셨다. 고작 3,000엔 옷 한 벌이었지만 너무나 진심을 다해주셔서 감동했다. 책에서 보았던 일본의 장인 정신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외에도 들렀던 상점들은 제 각각의 스타일로 친절하했고, 캠프기간 동안 두 번 들렀던 가게는 내가 떠나는 날 작은 선물을 챙겨주실 정도로 정이 많으셨기에 일본에 대해 새로운 면을 많이 보게 된 시간이었다.

Summer School 일정의 시작 - SDC (Sustainable Design Camp)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규슈대학 이토시마 캠퍼스는 최근 많은 건물들이 완공되었다. 부지에 왕릉이 굉장히 많아서 캠퍼스 안에도 왕릉이 있다는 것이 꽤 이색적이었다. 학교 내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왕릉에서 나온 출토 유물을 볼 수 있었다. 넓은 부지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연이어져 있었는데,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 햇빛을 피해 실내로 다닐 수 있게 건물들을 연결한 모양인지 긴 복도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 일본다운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의례 하는 캠퍼스 투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건물들이 하나하나 다 개성이 있고 허투루 만든 공간들이 쓰임새가 있게 아름다워서 즐거웠다. 학교의 역사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된 전시실이 있어서 특히나 흥미로웠다. 나는 중앙 도서관이 참 좋았는데, 위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각층의 내부가 일부분 보였는데, 장서에 둘러싸여 공부를 하는 학생들 너머로 하늘과 들판이 보여 탁 트인 공간이 연출된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합천 시골집에서 빨간 한복을 입은 어린시절의 나



일본에서 구입한 유카타를 입은 나



캠퍼스 투어 중 둘러본 건물들과 도서관 내부



캠퍼스 투어 중 함께 간 학생들과

캠퍼스 투어 다음 날 SDC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규슈대와 부산대 교수님들의 축사와 격려인사가 있었다. 캠퍼스아시아 사업단장 이인희 교수님께서도 오셨는데, 특유의 인자한 미소와 차분한 음성으로 학생들을 응원해 주셨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힘내라며 주먹을 쥐어 화이팅을 해주셨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교수님을 존경하고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교수님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교수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사진을 남길 수 있었다. SDC도 좋았지만 교수님과 짧게나마 대화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도 기뻐던 점 중 하나다.

각 나라의 학생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고, 과제가 떨어졌다. 우리조는 규슈대의 일본인 대학원생 3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충북대 학생 1명, 싱가포르 1명, 부산대 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다. 나와 같은 조였던 부산대 학부생인 민채는 올해 22살로 나와 15살이나 차이가 났는데, 같은 지역 출신에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서 금방 친해졌다.

우리가 맡은 지역은 '가후리'라는 곳으로 바다뷰는 넓지 않지만 강과 산, 밭의 뷰가 아름다운 지역으로 화려하진 않아도 아담함이 매력인 지역이었다. 조원들과는 대부분 영어로 대화를 했지만 인도네시아인인 니첼라 외에는 영어가 수월하지 않아서 번역기와 짧은 영어로 회의하고 대화를 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소통이 어려워 컨셉을 정하는 데에 아주 긴 시간이 걸렸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없어 꽤나 애를 먹었다. 정말 매일매일 언어 공부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생겨났고, 반대로 언어에 늘 자신이 없어 했지만 의외로 나는 의



오프닝 후 우리팀 첫모임



6.SDC 오프닝 때 이인희 교수님과

사전달을 잘 하고 있으며,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알아듣는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 우리는 '가후리' 지역을 자전거로 여행한다는 테마를 정해서 해변으로 연결시키는 계획을 짰다. 단정하고 작은 마을 이미지를 고려해 마을 안에 대단한 건물을 지어 올려 관광객을 끌어서 투

어리즘과 같은 현상을 만들기보다는, 지역의 상점들을 투어 지점으로 만드는 계획을 했다. 자전거 정류소는 작고 아담하되, 정류소 인근 주택의 지붕의 경사각을 가져왔다. 또한 그들이 부족한 마을의 특징을 고려해 마을의 중심도로에 캐노피를 달아 그늘을 확보하였다. 해변에는 휴게 호텔을 만들어 여행객과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했다.

인도네시아 사람인 니첼라는 군계일학의 학생이었는데,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표정에서 단단함과 따듯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조용히 프로그램으로 건물을 만들어 올리는데, 대단히 빠르고 멋지게 만들어 올려서 옆에서 보기 멋졌다. 우리는 때때로 번역기를 사용해 이런 저런 일상을 나누었는데, 니첼라는 규슈대에서 도시계획을 배우고 현지에서 경력을 쌓은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 인도네시아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따듯하고 희망찬 이야기라서 나는 응원하게 되었다.

우리는 총 3번의 발표를 했는데, 나는 어쩐지 쑥스



우리 조원들과 함께

럽고 부끄러워 단 한번도 발표를 하지 않아 이 점에 후회가 남는다. 지금 막 박사공통학위 개설을 위한 첫 회의를 두 학교가 막 시작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규슈대와 부산대에서 같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휴학을 하더라도 박사공통학위과정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감사의 말

37살 고령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다. 어린 친구들과 같이 가도 괜찮을까 많이 고민이 되었지만, 출산을 한 도 계속 공부하면서 일을 놓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엄마가 되었을 때 계속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2주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SDC에는 재미있는 강의와 프로그램이 가득했지만,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의 교류와 그곳에서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가깝지만 먼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강해 여행지로는 흥미가 생기지 않는 나라였지만, 실제로 느껴본 일본은 정말 단단하고 디테일이 강한 나라였다. 건물, 가구, 상점, 물건 등 개성이 강하면서도 쓰임새 있고 아름답기까지 해서 지내는 내내 감탄하고 그 지역을 만끽했다. 같이 간 부산대 대학생들도 순수하고 열정적이어서 같이 지내는 내내 좋은 영향을 많이 배웠다. 잠시였지만 SDC 첫날 부산대 교수님들께서 와주셔서 응원하고 이 워크샵을 즐기라고 해주셔서

걱정이 가득했던 마음을 털고 더 즐길 수 있었다. 어렵게 온만큼 매일매일이 더 특별했고 다 좋았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고, 좀 더 어릴 때 도전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첫 워크샵이었지만 외국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털어낼 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여러가지를 더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후회 없이 살아갈 자신감을 얻었다.



마지막 발표 후 모두 함께한 단체사진

캠퍼스 아시아와 나의 성장

김요재 | 성균관대학교

●● 사업단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론

2022년은 개인적으로 무척 의미 있는 해였다. 코로나와 함께 대학에 입학하면서 많은 권태와 무료함을 느꼈었다. 새내기 배움터, MT, 축제 등 기대했던 대학생활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무척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점을 잘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에 집중하여 나름의 결과를 얻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학점 기준이 완화되면서 학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2년 동안의 노력이 큰 의미가 없어진 학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이런 회의감에서 벗어나고자 대학생활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고, 3학년에 들어서는 할 수 있는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학과 회장, 단과대 비상대책위원장, 단과대 회장 후보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부른 도전은 바랬던 결과를 낳지 못했고, 2월에 치러진

단과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낙마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 자신에 대한 회의,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 다툼에서 오는 피로함 등 다양하고 밀도 높은 감정을 느꼈고, 이 감정들은 도전에 대한 나의 태도를 재고(再考)하도록 했다. 그렇게 다시 무력감과 권태에 휩쓸릴 무렵, 우연히 캠퍼스 아시아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교환학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에 마땅한 어학 성적도 없었지만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나에겐 무척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최근에 겪었던 큰 실패에서 비롯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과 새로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망 사이에서 방황했지만 2022년의 목표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결정 중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고 자부한다.

일본

캠퍼스 아시아를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왜 굳이 일본이냐는 것이었다. 교환학생의 목적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바, 한국과 유사한 문화를 가진 일본에 가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논지였다. 내가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논리보다는 학업적 관심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한국에 있어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한국이 표방하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을 실현하기 위해선 미국과 긴밀한 동맹인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 각국의 정서가 서로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 정치적으로 서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개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설정이 한국이 직면한 중요한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일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관계설정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캠퍼스 아시아는 “상대 국가의 진면목을 공부하고 실제로 직접 소통하고 진행하는 학술, 학생 교류”를 사업의 목적으로 추구하기에 이런 나의 학업적 관심과 일치했고, 이것이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결정한 이유다.

생활

나고야대학에 교환학생을 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본인이 가지고 역량에 따라 경험의 폭과 밀도가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경험의 질도 자신의 내공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나는 매우 기초적인 일본어를 터득한 채로 일본에 갔다. 식당에서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누군가와 일본어로 대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었다. 일본어로 대화가 안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말할 일이 없어졌고, 언어는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여 실력이 오르는 정직한 분야인 만큼 나의 일본어 실력은 정체되었다. 반면 영어 실력은 크게 늘었다.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거나 유창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이어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회화가 늘 수밖에 없었고, 수업도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영어 논문을 읽고, 수업 시간에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 일련의 과정은 영어 실력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중요한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능력인 것이다. 적절한 압박을 주는 환경 속에서 능력을 갖춘 상태에선 그 능력이 눈덩이처럼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고야대학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만난 인연은 모두 의미 있지만 특히 소중한 인연으로 캠퍼스 아시아에서 만난 싱가포르 친구들이었다. 2021년부터 기존 한중일에 국한되어 있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ASEAN 국가까지 아우르게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 학기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선발대로 온 친구들은 친근하고 지적인 면모가 있는 친구들이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에선 학생들을 보내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제한적으로 인원을 보냈기에 캠퍼스 아시아의 인원은 4명이 전부였다. 적은 인원인 만큼 자주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가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자란 배경이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나고야대학에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준다. 방에서 수업이 없는 한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은 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일례로 한국의 정치와 싱가포르의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특히 내가 ‘Legal Culture’ 시간에 싱가포르의 유교 문화를 발표할 일이 있었을 때 싱가포르의 유교 문화에 대해서 가감 없는 의견을 던져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 중국의 정치와 역사, 권위주의 체제의 명과 암, 대륙법과 영미법의 우열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 교환은 내 학문적 시선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다. 캠퍼스 아시아에서 만난 친구들이 외에도 수업에서 만난 몽골 친구들, 미국-일본, 한국-일본, 태국-일본의 혼혈 친구들, 인도 친구들, 프랑스, 독일 친구들 등 다양한 배경에서 자란 친구들과 수업에서 또 사석에서 한 여러 토론들은 제한적이었던 내 세계관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학업

많은 학생들이 교환을 갔을 때 학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성을 띤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대부분 p/f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문화 체험, 언어 실력 증대 등 친구들과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우선순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새로운 문화 체험이나 다양한 경험도 당연히 교환학생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지만, 학업적 이유가 우선순위에 있던 만큼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또 소속 학과 학과장님의 재량에 따라 레터로 성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동기 중 하나였다.

수강신청 과정은 관대한 편이다. 원하는 과목은 다 들을 수 있다. 한국에서 치열한 수강신청을 경험했던 만큼 이런 종류의 배려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보통 일본어 수업 하나가 의무이고, 일본법 관련 수업이나 일본 정치 관련 수업, 동아시아 국제 관계 등 캠퍼스 아시아 취지에 맞는 수업을 1년 동안 4개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일본어 수업은 한 학기에 하나씩 있고, 나머지 의무 전공 수업이 4개 이므로 총 6개를 일년동안 나눠 듣게 된다. 의무 수업과 더불어 대부분의 수업들은 G30이라는 나고야대학 유학생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다른 프로그램으로 온 교환학생들, 나고야대학에 특정 전형으로 들어온 유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교수님들도 대부분 서구권 이시다. 기본적으로 영어 프로그램은 일본인 학생들이 거의 듣지 않는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소수 인원의 수업이 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대형 강의와 달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의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수업 방식과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어렵

지는 않다. 물론 당연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전공이 철학이고 복수전공이 정치외교인만큼 토론과 발표는 빈번한 수업방식의 일환이었다. 단지 수업의 언어가 영어로 바뀐 점, 그리고 수업 인원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바뀐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한국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노력을 기울인 만큼 성과가 나오기에 열심히 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인상깊은 수업으로 'International Migration'이 있었다. 이민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 수업이었지만 한국에서 이민을 전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 만큼 흥미로운 강의였다.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민자들에 대한 배척은 어쩌면 동아시아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다민족 사회라기보다는 단일민족 사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무척 부정적이다. 이는 서구권 국가들이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이민자들의 수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의 빈도가 낮을수록, 이민자들에 적대적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를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적용시키면 세 국가 모두가 서로서에게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는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에는 이해가 기본이고 이해를 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 캠퍼스 아시아와 같이 3국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결론

캠퍼스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고 현실 도피적 성향이 강했지만 나를 다시 찾고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친구들은 만나며 작은 세계에 갇혀 있던 나 자신의 학문적 소양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권태와 무력감 속에서 변화를 원치 않던 나의 인격관도 한층 성장시킬 수 있었다. 캠퍼스 아시아라는 기준점으로 동아시아 3국의 사람들, 더 나아가 아세안 지역의 사람들까지 만나고 심도 있는 주제에 토의하면서 한일 관계에 머물러 있던 학문적 관심이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반에 걸쳐 한국이 설정해야 할 국제적 관계에 대한 고찰까지 확장되었다. 동아시아는 이미 강대국들이 밀집되어 있고, 남아시아는 잠재성이 높은 국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므로 국제적 질서에서 이들과의 관계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외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꿈인 나로서는 캠퍼스 아시아에서의 경험이 나의 꿈을 다시금 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정표로써 기능했다. 큰 실패에서 무력감을 느꼈지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학문적 성장과 인격적 성숙이라는 값진 성공을 경험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여 종래에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2021-2022 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장려

**My Exchange Experience at Kobe University:
Cooperation when Richer Individual Stories
are Embedded in Deeper Inclusive Context**

Li Jing Kobe University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 고베

전설희 고려대학교

일본 츠쿠바, 교육과 배움의 장

이세영 한국교원대학교

20대의 나를 도전하게 만들어준 캠퍼스아시아

박준성 동서대학교

2021-2022 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JAPAN



KOREA



CHINA



My Exchange Experience at Kobe University: A Better Cooperation when Richer Individual Stories are Embedded in Deeper Inclusive Context..

Li Jing | Kobe University



●●● 사업단 | 고려대 국제대학원

Introduction

I filled out the application to be a part of the CAMPUS Asia exchange program about six months ago, with both anxiety and enthusiasm. As a Chinese studying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I have deeply realize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during the past two years of master's study. More importantly, I came to understand the value of face-to-face contact while communicating and studying with peers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Moreover, there is a lot of room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close ties. As a student who is passionate about researching Northeast Asian relations, particularly public diplomacy, I was consequently interested in Japan when my friend Ayaka from Kobe University suggested this exchange program to me. Fortunately, I was able to pass the interview and was awarded the JASSO scholarship from Japan, which made my exchange experience in Kobe a pleasure. In this

essay, I would like to share my vivid exchange experience at Kobe University from two aspects, namely, the rigorous academic life, and the colorful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Intensive Academic Life I Lived at Kobe University

This semester of exchange at Kobe University is also the last semester of my master's degree, which means that my main task is to finish my thesis. Whether it was Professor Kim from Korea University or Professor Kimura from Kobe University, these two advisors have patiently guided me. These months of academic life are destined to be challenging. I spent most of my time revising my thesis. First, I read more references and improved my literature review section. Second, b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professors and classmates in the seminar, the structure of my thesis was re-integrated, making the logic of the full text clearer. Thirdly, I compared and observed the situation of nationalism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By doing this I deepen my understanding of the topic of my thesis. Hopefully, my thesis can be improved. In addition to revising thesis and taking classes, I also learned some basic Japanese.

On the one hand, I need to maintain communication and contact with my Korean supervisor through emails, and on the other hand, I need to communicate my thesis with Japanese professors and classmates in seminars at Kobe University. Writing and revising papers was so challenging that I frequently stayed up late or suffered from insomnia. With the professor's patient instruction and the numerous recommendations from my classmates at Kobe University, however, I was able to complete the assignment. The most worth mentioning is that Rafy, a doctoral student from Indonesia, and Sun, a master student from China, gave me many critical and insightful comments, which made my thesis more and more clear in structure and rigorous in logic.

More importantly, my exchange experience in Kobe provided more perspectives and comparative analysis for my thesis. My research focuses on the nationalism of Chinese Hallyu fans and the limit of Hallyu as soft power. There are also many Hallyu fans in Japan, but through communicating with them, I found that their nationalism is very different from Chinese young people, which further inspired my research.

In addition to the seminar, I also took the course of the Campus Asia program - Risk



The Bags of Korea University and Kobe University



The Seminar Class of Professor Kimula

Management. This course is newly opened and taught by professors from China, Japan, Korea, Laos and Thailand in turn. Although the specific topics of each course will vary somewhat, the teaching quality is indeed very high, and I really

appreciate the attractiveness of the Campus Asia project, which aims to promote knowledge dissemination and exchanges between young scholars through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nations. It also aims to break down cultural and political barriers to foster a more inclusive and prosperous Asia. Additionally, each student taking part in the initiative is a special individual who strives to create a more diverse community. Each of our excellent exchange experiences is a pa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ultural Diversity and In tegration

Due to historical and cultural reasons, although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close neighbors, there are constant frictions and conflicts. Compared with the culturally intense public opinion environment on the Internet, the exchange experience is more specific and real. In this environment, I really realized that culture has no borders, and even does not need language. Although I only know some basic Japanese, it does not affect the communication with Japanese classmates. As long as the hearts are the same, we can communicate through English and even body language. What impressed me deeply was that after learning that I was going to interview Hallyu fans, my Japanese class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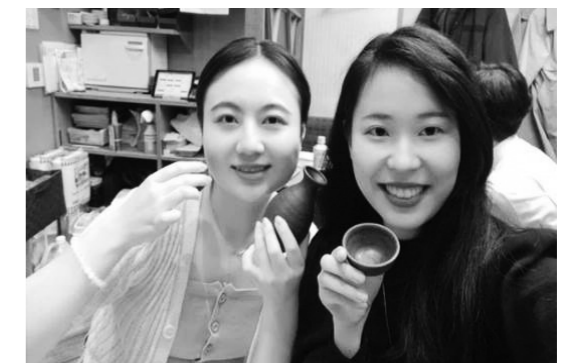
Maiko volunteered to accept my interview and had many discussions with me. She gave me a lot of insightful ideas and we also became good friends. In addition, she also took me to taste a lot of Japanese food and experience the Japanese Izakaya culture.

Although the burden of revising the thesis is relatively heavy during my exchange life, and I am under a lot of pressure, I also try my best to balance study and life. First, I made a Japanese friend through the Risk Management course as I mentioned. More importantly, we are very interested in the culture of each other's country, and we often talk about Chinese and Japanese culture with each other. This helps reduce a lot of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Second, since this month is the last month of my offline class in Japan, the professor and classmates held a farewell party for me. The atmosphere was very pleasant and relaxed, and I also experienced the Japanese izakaya culture. I am very grateful for that. Thirdly, I also traveled to Osaka, Kyoto, Tokyo, and Fuji this month, which helped me deeply experience the local Japanese culture.

Conclusion

I a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provided by the Campus Asia program to go to Japan as an

exchange student. I've witnessed the clash of cultures, and obtained many life-long friend and priceless treasures. There could be some regrets when thinking back on the trip to Kobe, but it was also a journey that helped individuals learn and develop. Here, I've experienced the scent of learning, expanded my horizons, enjoyed the various cultures of Japan, and tasted what it's like to be an outsider. I strive to urge everyone to bravely take the initial step and try an exchange program. After all, the process of expanding your perspective on the world is a unique educational opportunity in and of itself.



3 Me and Maiko at an Izakaya Restaurant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 고베

전설희 | 고려대학교



Fuji Mountain

Port of Kobe



Tokyo Tower

Kobe Sannomiya

●●● 사업단 | 고려대 국제대학원

국제대학원 진학 후 가장 잘 한 선택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해 고베로 파견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 있어 고베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의 땅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류했고 그 교류로 얻은 수많은 기회와 귀한 정보들이 있었으며, 세계 어느 나라 사람과도 원활히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다. 귀국 후에도 주변 인들에게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선, 고베대학교 국제대학원은 탁월한 연구 능력 및 성과 혹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와 커리어를 가지신 교수님 및 동문들이 많이 계시고 이러한 분들과 교류함으로써 학업 혹은 커리어 면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베대학교로 파견되었을 당시 지도교수님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갖추신 오가와 케이이치 교수님이셨고, 교수님께서서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쌓으신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통해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 인턴십 기회를 매 학기 지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셨다. 대학원 진학 전 양자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인턴십 경험은 있었으나 연구기관에서의 인턴십 경험이 없었던 터라 교수님께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자 당시 나의 관심 연구 지역이었던 캄보디아의 대표적 개발 연구소인 Cambodia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CDRI)의 연구 보조 인턴십을 소개해 주셨고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인턴십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체계적 문헌 검토, 데이터 수집 및 논문 교정/교열 등의 업무는 주요 업무가 동일 직종 서류 지원 시 큰 도움이 되었고, 해외 근무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인턴십 기회 뿐 아니라 선배 및 동문들의 경험을 통해 학술 활동 및 진로 탐색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국제기구 전/현직자인 선배님들께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과 교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제기구 지원 시 서류 통과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CDRI 인턴십 종료 증명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습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려면 단순한 결심보다는 환경과 주변인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고베대학교 파견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다. 고베대학교에서는 귀감이 되는 동기들과 선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모두들 굉장히 성실하고 탁월한 연구 능력을 갖췄으며 자기 개발을 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유능하면서도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모두들 지도교수님인 오가와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적극성'을 염두에 두며 학업과 커리어 개발에 힘썼고 좋은 인맥을 구축하고 유지할 줄 아는 듯했다. 고베대학교에 가기 전의 나 자신은 적극적인 편과 소극적인 편 중 어느 쪽이냐고 묻는다면 쉽사리 적극적인 편을 고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베대학교 오가와 연구실의 분위기에 녹아들어 적극

성을 기르고 그 적극성을 통해 학회 발표 경험, 해외 인턴십 경험, 국제기구 경험자인 선배 및 동기들과의 인맥 구축 등 많은 것을 얻은 지금은 확실하게 자신이 적극적인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평소에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활동이 무엇인가 떠올리며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목표에 미리 가 계신 선배님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기를 수 있었다.



오가와 연구실의 선후배 및 동기들과

고베대학교 파견을 통해 얻은 세 번째 보물은 연구 능력 배양이었다. 파견 이전에는 단 한 학기만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보냈고 그 때 당시 확실한 석사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귀국 직후 졸업 논문 작성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이것은 기우였다. 고베대학교에서는 지도교수님 수업인 특별 세미나 수업이 있고 매 학기 이 수업을 통해 연구 프로포절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듣는 시간

을 가짐으로써 매 학기 본인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특별 세미나 이외에도 고베대학교 파견 시 일본 내외의 여러 대학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포럼에서의 발표 기회, 국제기구 현직자 분들이 참여하시는 세미나 수업에서의 발표 기회 등 개인 연구 및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주어진다. 이를 통해 귀국 이전까지 졸업 논문의 뼈대를 전부 짜고 특별 세미나 수업 및 아카데미 포럼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얻어 반영함으로써 귀국 후 고려대학교의 교수님께 지금껏 짠 논문의 골격을 보여드렸을 때 몹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고베대학교 파견이 아니었다면 논문의 주제를 정하고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난항이 따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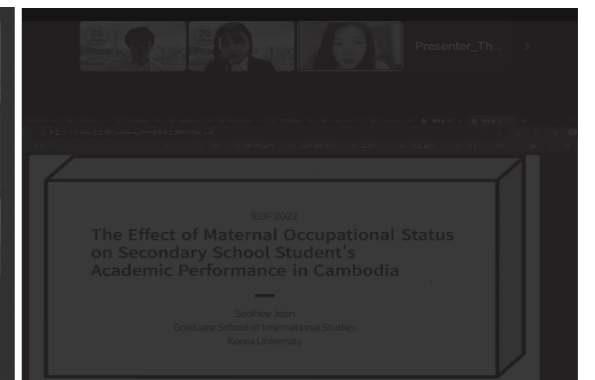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고베대학교 파견을 통해 얻은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본받을 만하며 함께 있을 때 너무나 즐거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언제나 연구나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털어버릴 수 있었고, 때로 숨

돌릴 틈이 생기면 일본 국내 여행을 하며 좋은 추억도 쌓는 그런 친구들이 생겼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을 것이라는 열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귀국 후인 지금까지도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 몇몇 친구들은 일부러 먼 땅에서 나를 만나러 한국에 찾아오기까지 해 큰 감동을 받았다. 학기 중이나 업무가 있을 때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바쁜 것이 끝났을 때 멀리 떨어져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게 되었고, 언제나 만전을 기해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단기간 내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업 혹은 직업적 기회를 잡아 생활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국제대학원에 오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오가와 연구실의 선후배 및 동기들과



일본 츠쿠바, 교육과 배움의 장

이세영 | 한국교원대학교

●● 사업단 | 한국교원대학교

세간에서는 '세 명이 길을 걸으면 그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공자의 격언을 자주 사용된다. 나도 이 격언에 공감하여 인생관 중 하나로 여기며 살아왔다. 학창 시절에도, 교직에 몸담을 때에도, 학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배울 점을 찾으며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삶의 길이라고 생각해왔다. CAMPUS Asia는 국제 무대에서 많은 스승을 만나 다양한 배울 점을 내재화할 기회였기에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득하였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내가 참여한 CAMPUS Asia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유목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서두에서 잠깐 밝혔듯이 나는 한국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6년을 보냈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함께 성장하였지만, 교실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런 이유로 교육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교직을 잠시 쉬고 교원 양성 전문 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의 대학원에서 교

육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오랜만에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중에 CAMPUS Asia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주최한 CAMPUS Asia 프로그램은 각국에서 교육으로 저명한 대학의 대학원생들을 교류하여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량을 지닌 교육 전문가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던 목적과 프로그램의 취지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세계 시민성을 강조해왔던 나의 교육관을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결심과 판단을 잘 정리하여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일본의 교육학계에서 대단한 위상을 가진 츠쿠바대학교에 머물며 공부할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일본 츠쿠바대학교에서 보낸 3개월은 짧지만,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다. 일본에서의 일상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 가기 한 달 전부터 한국에서 온라인 필수 강의를 수강하며 과제를 수행했고,

영어 및 일본어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였다. 10월부터 12월까지 일본에서 생활하였는데, 평일에는 츠쿠바대학교에서 유학생을 위해 제공하는 일본어 수업을 수강하기도 하고, 본 프로그램에 예정된 강연, 세미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츠쿠바대학교 측에서 준비한 커리큘럼은 교육의 여러 측면에 대해 소주제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일본 교육 상황에 대해서는 강연을 듣고 태국, 중국에서 온 다른 대학원생들과 함께 각국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토의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된 세미나를 영어로 진행하였다. 세미나에서 다뤄진 소주제로는 전반적인 학제,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 문제, 교육의 불평등, 이민자 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이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는데 일본의 현지 학교나 교육 행정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현장 학습과 문화의 날이나 음악회와 같은 친목 도모 행사도 진행되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츠쿠바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회화 연습 프로그램이나 학교 문화제도 즐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있을 때는 다른 참가자들과 대학교 주변을 탐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며 충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 내가 혼자 가는 길에 두 명만이 모여도 스승이 생기게 되는데,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글로벌 이슈에 대해 지적 측면의 성장을 이루었다. 각 나라의 사례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자가 생각하는 중대한 글로벌 이슈는 무엇인지, 현장학습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었는



세미나 장면-현지 학교 방문에 앞서 그 학교의 배경지식에 대한강의가 진행되었다.

지 등의 주제에 대해 세미나 시간에 충분히 얘기하였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각국의 맥락을 기반으로 토의하였기 때문에 글로벌 교육 이슈에 대한 배경지식을 많이 쌓게 되었다. 이처럼 인지적 차원의 확장도 중요한 소득이지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것 중에 더욱 값진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이었다.

많은 시간 동안 교류한 일본 관계자들과 태국 참가 학생들을 통해 배운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 적응하면서 놀라웠던 점이 일본 츠쿠바대학교의 교수진과 코디네이터들, 그리고 츠쿠바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친절함이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일정 및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끊임없이 참가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개개인의 상태를 살폈다. 이렇게 성의 있게 타국에서 온 학생들을 돕는 모습에서 사려 깊은 배려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그런 행동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또한, 태국 콘칸대학교에서 파견된 네 명의 친구로부터 환대와 호의의 중요성을 배



음악회(Musication)-모든 참가국 학생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음악으로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왔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낮가림 없이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었던 그들이 있었기에 불안할 수 있던 타국에서의 생활이 편하게 느껴졌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태국 친구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나는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실망을 하게 되면 '역시 좋을 수만은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소 부정적인 인식에 수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국 친구들은 실망감보다 장점에 더욱 관심을 두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매사에 좋은 부분을 찾아 실망스러운 부분마저 포용할 수 있는 그들의 넉넉함에 나는 매료되었고,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그런 낙관적인 태도를 닮고자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런 값진 배움은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학교로 돌아가 다시 교단에 서기 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성실한 태도,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체득하여 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더불어,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다. 새 학기에 만나게 되는 아이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일본에서 3개월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막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할 것이다. 나는 다행히 일본어를 학창 시절에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3개월의 수학 동안 전공 분야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외국어 향상과 원활한 타지 생활 적응이라는 결과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참가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적응 정도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한 교실 안의 아이들도 모두 배움에 대한 다양한 속도와 방식이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교사의 언어와 사고방식에 잘 적응하여 1년을 수월하게 보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 전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의 노력이 닿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그런 학생을 만나도 무뎠게 지내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일본어가 십수 년이 지난 뒤에 활용되듯이 내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지식, 개념, 인식, 시각, 삶의 자세, 가치관 등이 언젠가는 아이들의 삶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꽃피울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내가 아이들을 대

할 때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배움에 대해 지속적인 열의를 갖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작은 단위의 성취감을 꾸준히 느끼도록 교사가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학생이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이 성취하는 정도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면 배움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어에 대해 원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전날 습득한 단어, 표현 하나라도 활용하자.'라는 작은 목표들을 세웠다. 그 결과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에 점점 흥미가 생겼고 그런 목표가 일본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이들이 자신의 작은 성취도를 세우기 어려워할 때 옆에서 아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로서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교사 정체성이 강해지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공부하게 되어 아이들의 심정과 어려움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어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된다.

지금까지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3개월 동안 지내고 공부하면서 든 나의 배움과 깨달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보았다. 먼저 CAMPUS Asia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친절함, 환대 및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일본어 학습 과정을 통해 예전에 배운 내용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 삶에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취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자 결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배운 것이 떠오른다. 특히, 내가 일본에서 공부하게 되기까지 나에게 많은 스승이 있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동료 교사들이 그들이다. 내가 한국의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 태국, 중국의 참가자들은 내가 설명하는 사례를 통해 한국 교육이 마주한 문제나 한국 교육 시스템과 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혁신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구성된 교육과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학교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지기에 청중들의 반응을 보며 오히려 전달하는 내가 놀라움을 많이 느꼈다. 혁신학교의 경험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연구하시고 토의하시는 노력 끝에 얻어진 산물이다. 내가 그 학교에 근무하며 많은 선생님의 노력이 담긴 교육활동을 자연스럽게 접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나에게 자산이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나니 내가 가는 길에는 정말 많은 스승이 있었고, 그들 덕분에 내가 성장하였다는 것에 정말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 나도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사였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겠다.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스승들을 연결해준 CAMPUS Asia 프로그램이 더욱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나의 제안은 각국에 파견된 학생과도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각각 한 명의 학생들이 파견되었다. 개인적으로 그들과 연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쪽의

상황과 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앞으로는 본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학업적인 성과도 간단하게 나누고, 각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인 웨비나도 포함하고 사전에 일정을 확정 짓는다면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들을 듣고 시야를 넓힐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만남이 확장되어 한국교원대에 파견된 타국의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앞으로 한국교원대에서 주관하는 CAMPUS Asia 프로그램이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오가와 연구실의 선후배 및 동기들과



20대의 나를 도전하게 만들어준 캠퍼스아시아

박준성 | 동서대학교



●●● 사업단 |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캠퍼스아시아학과에 도전하다

내가 처음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을 접한 것은 2019년 해군에 복무하던 중 후임으로부터 추천받으면서이다. 군복무 전 나는 여행사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안내 업무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어를 학습하기 시작했고, 해군에 입대한 뒤로는 군대에서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여 HSK4급까지 취득하였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같은 부대 후임이 나를 추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된 캠퍼스아시아학과를 처음 홈페이지를 통해 접했는데, 3국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이 무척 흥미로웠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공부하며 2학년 3학년때 중국에 있는 광둥외어외무대학과 일본에 있는 리츠메이칸대학에 가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4학년때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졸업하는 시스템이었다. 게다가 모두 전액장학금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외국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연계에서 공부하는 GLLP (한·중·일 3국 대학 공동교

육과정과 3국 학생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인상깊었다. 나는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일본어, 일본 문화를 더 깊게 공부하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배운 뒤 졸업 후 무역사업, 글로벌 기업에 도전하기 위해 캠퍼스아시아학과를 선택했다. 그래서 군 전역 후 계속 면접준비에 일년 해 2020년 캠퍼스아시아 5기에 합격할 수 있었다.

다사다난했던 1학년

학교에 입학하고 파란만장한 학교생활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학기수업이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이것을 기회로 나는 운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1학년 수업을 들었다. 2학년 3학년에 유학에 가서 현지수업을 듣기 위해 일본어, 중국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했다. 그리고 인문학 수업도 생소한 이야기가 많았고 과제량이 적지 않아서 처음 1학년 수업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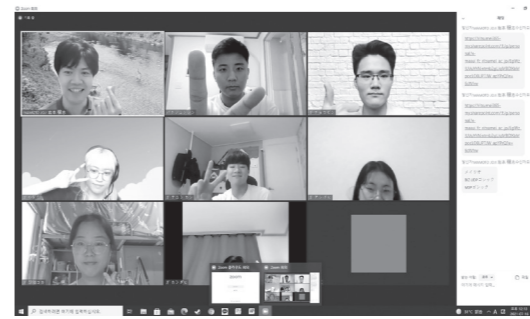
가기에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3주 4주가 지나니 어느새 적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 시간 동안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10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7시부터 운동하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그렇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부터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2학기에는 나 자신을 더 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먼저 1학년 학과대표를 맡아 학생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학교생활에 임했고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를 홍보하는 홍보대사에 합격해 ODA(공적개발원조),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공부하며 사람들에게 카드뉴스,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공교롭게도 같이 KOICA 대외활동에 합격한 선배들이 있어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배우며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1학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으로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하는 행동력을 기를 수 있었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기

다사다난했던 1학년을 마치고 유학준비로 바쁘게 지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 4월 계획되었던 일본 유학이 취소되었다. 나의 리츠메이칸 수업은 모두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고 2학기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교 역시 유학을 갈 수 없게 되어 좌절하고 있던 중 '어차피 결정되었으니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라고 생각을 바꿨다. 오전부터 오후에는 리츠메이칸 수업에서 일본어강의를 들었다. 내가 들어간 일본어 수업 레벨은 4단계의 일본어로



기초수준의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이었다. 수업은 회화 수업, 종합수업, 문법수업으로 나누어 공부를 했다. 온라인 수업의 교실안에는 5명의 한국인과 2명의 중국인 학생이 있었고 1명의 일본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했다. 처음보는 외국인과의 수업에 '적응을 못하지 않을까, 어색해서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 하다 보니 마음이 열리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처럼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일본어 교수님께서 '매일 어떤 일이 있었나요?' 등의 간단한 일상회화를 시작으로 친구들과 일본어로 이야기하며 일상대화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친구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일본어 문법 수업은 매주 새로운 문법을 사용해 숙제를 하고 문장을 만들어 실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한달이 지나니 일본어가 귀에 적응되고 수업 3개월이 지나니 JLPT N3에 순조롭게 합격할 수 있었다. 이후 2학기에는 일본, 중국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같은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언어 교류를 위해 부산에 내려가 광둥외어외무대학수업을 들었다. 광둥외어외무대학의 수업은 회화, 문법, 인문학 수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일본의 리츠메이칸 수업과는 달리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고 책 안에 있는 내용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다른 학생들은 중국어가 많이 낯설고 한자가 어려워 중국수업이 많이 힘들었지만 나는 군에서 hsk4급을 취득해놓은 덕에 다른 친구들보다 순조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외국인 친구들과 언어교류 활동을 목적

2020년 2학기 시간표

일	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Go global 프로그램과 L.O.L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Go global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인 친구와 팀을 이뤄 부산내 맛있는 밀면, 돼지국밥 등 한국의 음식을 알리고 중국인 친구의 과제, 발표를 도와주는 등 활발한 교류를 했다. 그리고 L.O.L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인 친구와 팀을 이뤄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 전통시장에 방문해 시장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기숙사내에 같은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일본 친구와 생활하며 1학기때 배웠던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언어 교류뿐만 아니라 서로의 과제를 도와주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로의 옷을 입어보는 등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서로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CAMPUS Asia 한일중 문화 페스티벌에 성과보고회에서 일본 친구와 함께 L.O.L 프로그램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장려상을 받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한 좋은 수업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1 CAMPUS Asia 상반기 UCC 콘테스트에 참여해 특별상을 받고 방학에는 광동외국어외무대학의 중국어 수업을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여 HSK5급 시험에 합격하였다.

2021년 확정되었던 유학이 취소되고 좌절하였지만 좌절을 딛고 일어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2021년은 나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던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앞을 보고 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학생할

2022년 4월 드디어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정말로 유학이 확정된 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다. 비자, 여권, COE, 기숙사 신청, PCR 검사확인서 등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일본으로 가서 리츠메이칸대학의 수업을 들었다. 리츠메이칸 대학의 기숙사는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았다. 방도 1인기숙사에 방마다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어서 생활하기 정말 편했다. 또한 층마다 LDK라고 하는 큰 주방이 있어서 밥을 직접 만들어먹기에도 좋은 환경이었다. 리츠메이칸 대학의 수업은 일본어 종합 수업, 쓰기수업, 청해수업, 또 캠퍼스아시아 인문학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모든 수업을 일본어로 진행하고 일본어로 시험을 보았다. 청해 수업은 일본어를 듣고 문제를 푸는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쓰기 수업은 문법을 배우고 일본어의 문장 구조, 문장부호 등을 배우고 작문하는 법을 배웠다. 종합수업에는 학생들과 교류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간은 일본 중국학생들이 모여 오체불



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삶을 살펴보면 장애자의 불편함, 사회인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한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장애자의 불편함을 일본, 중국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경험이 인상깊었다. 이후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늘 일본어를 사용하니 귀에 익어 JLPT N2에 응시해 순조롭게 합격할 수 있었다. 캠퍼스아시아 인문학 수업은 총 세가지로 하나는 중국, 일본,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하여 발표하는 수업, 일본의 논문을 찾아보며 분석하고 발표하는 수업, 일본의 전쟁 전후 문학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중국, 일본,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하는 수업이었다. 같은 사건이 있더라도 서로의 교과서에는 서로의 나라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나는 늘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역사를 배우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동아시아의 역사의 시각으로 보니 새로운 점이 많이 보였고, 각 나라가 다 저마다의 이유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감정적으로 역사를 보는 인식을 가졌던 나의 역사관에 객관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서 크게 기억에 남았다.

일본 유학생할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주말에 주방에서 즐겼던 파티였다. 중국친구에게 한국요리를 해주고 다음 파티에는 중국친구들이 중국요리를 만들어주었던 기억이 있다. 이때 일본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서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추억을 나누며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서로의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며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에 대해 깊게 알 수 있었다. 중국 친구들이 내가 만들었던 보쌈, 김치찌개를 먹고 정말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을 때 내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

2022년 8월까지 4개월간의 즐거웠던 유학생할이 끝나고 나는 부산으로 돌아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생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생활비를 벌며 광동외국어외무대학 수업을 들었다. 이번 광동외국어외무대학의 수업은 문법, 회화, 작문 수업, 인문학 수업으로 나뉘었다. 문법 시간에는 작년보다 더 깊은 수준의 문법을 배웠고, 회화시간에는 옷을 고를 때, 친구와 여행에 갈 때, 밥을 만들 때 중국의 일상회화에

서 쓰는 단어를 보다 더 깊게 배웠다. 작문 수업에는 책안의 본문을 먼저 공부하고 본문에 나온 문법을 바탕으로 매주 작문을 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인문학 수업은 동아시아연구, 중국영화감상, 중국문학선독으로 3가지 수업으로 나뉘었다. 동아시아연구는 3명의 교수님이 각자 자신이 맡은 동아시아의 식 문화, 역사, 의복 등에 대해 배우고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 발표를 진행했다. 중국영화감상 수업에서는 중국의 영화를 보며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중국의 유명한 배우, 감독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중국의 영웅본색, 무간도, 중경삼림, 등 이름으로만 들었던 중국의 명작 영화들을 보고, 공부하고 현대의 중국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문학선독 시간에는 중국의 현대문학을 배웠다. 중국의 朱自淸의 문학작품에 대해 분석하고 HSK 6급 수준의 단어를 공부했다. 중국어로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이번 광둥외어외무대학수업도 작년과 같이 널널한 편이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먼저 영어를 단련하기 위해 국제청소년리더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즈베키스탄 친구들과 팀을 이뤄 2030국제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친구들과 부산의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태종대 등등 다양한 관광지를 여행하고 국제엑스포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처음에는 많이 서먹하고,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 힘들었지만, 같이 촬영하고 밥을 먹고 친해지니 영어 역시 입에 붙는 느낌이 들었다. 이후 발표날 우리 팀이 1위의 이름으로 호명 되었을 때에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

분이었다. 이때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영어실력이 조금 늘 수 있어 값진 경험이 되었다. 무엇보다 크게 느낀 점은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도 진심으로 대하고, 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면 진심은 통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리더교류지원사업 수기공모전에 참여해 한국청소년진흥원 이사장상을 받았고, 동서대학교에서 개최한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계속 발전하는 2022년을 보냈다.

유학이 끝나고, 앞으로의 계획

현재 나는 2023년 4학년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4학년에는 논문을 작성하고, HSK 6급, JLPT N1을 따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먼저 광둥외어외무대학에서 공부한 중국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공부해 2023년 3월 HSK6급에 도전할 예정이다. 동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젬스 프로젝트에 참여해 중국, 일본을 취재하며 캠퍼스아시아학과에서 공부한 것, 1학년때 KOICA 홍보대사를 하며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중일 SDGs 3국 현황 비교 논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7월에는 JLPT N1에 도전해 합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2023년 8월 방학부터 무역관련자격증,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를 공부하며 2024년 무역기업,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 해외 취업을 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는 물건은 MADE IN CHINA 일 것이다. 중국에서 14억 명의 국민들은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근무에 임한다면 사람

들의 니즈를 찾는 능력을 더욱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나는 최종적으로 무역사업을 하고 싶다. 사람들의 니즈를 찾는 능력,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류하며, 협업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든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서대학교에 들어와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낸 것은 내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과정, 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당당히 앞을 보고 나의 길을 나아갈 것이다.

미래의 참가자에게.

미래의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나는 무엇이든 도전해라라고 말하고 싶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20대일 것이다. 대학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참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을 경험하며 하나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모두 똑같다. 이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은 중국, 일본의 국가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을 발판 삼아 더 많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도전을 하면 실패를 얻을 수 있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니다. 도전했다는 경험이다. 도전이라는 경험을 얻고 내가 새로운 분야를 배웠다는 경험은, 훗날의 미래에 더 넓은 시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도전했던 경험은 현재의 나에게 하나씩 쌓이고 쌓여 더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게 첫번째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캠퍼스아시아학과에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무엇이든 도전해보자.

2021-2022 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 인 쇄 | 2023년 2월

| 발 행 | 2023년 2월

| 발 행 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TEL. 02) 6919-3800

| 인 쇄 처 | 경성문화사 TEL. 02) 786-2999

| I S B N | 979-11-6004-714-1

| 자료번호 | RM 2020-12-929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